

‘지지부진’ 청라시티타워, 비행 안전 ‘발목’

서울항공청, 비행절차 확인 용역 추진
비행절차 변경하면 원안대로 건립
경자청, 행정절차 미비 등 비판 불가피

15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라시티타워 건립이 이번엔 비행 안전에 발목을 잡힌 가운데 비행절차를 변경하면 원안대로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이용우(민주·서울)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이 비행절차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변경 시 청라시티타워의 448m 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서울항공청은 수도권 비행구역과 비행절차 영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청라시티타워 건립에 따른 비행 영향을 측정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청라시티타워 착공도 미뤄진다는 점이다.

청라시티타워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에 448m 높이로 조성될 계획이다.

당초 착공 시점은 2009년이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연된 기간동안 공사 금액은 크게 늘어났고, 민간사업자와 추가 부담금 관련 갈등까지 겪었다.

이에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5월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3차 경영투자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라시티타워가 김포국제공항 관제 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울항공청이 용역에 들어가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결국 건축허가 처리 등의 행정절차 미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항공청은 지난 202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요청한 청라시티타워 관련 심의 사항이 비행절차 영향 검토가 아닌 ‘항공시설법 및 관련규정 적합 여부’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행절차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비행절차 유지시에는 건축 가능 높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비행절차는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완공이 됐어도 진작에 댔어야 할 청라시티타워가 겨우 정상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서울항공청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청라 주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연구용역과 비행절차 변경은 물론 시티타워를 원안대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청라 주민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송도 열병합발전소 2차 설명회, 주체측 입도 못 열고 ‘파행’

(인천종합에너지)

파켓 시위 등 거센 주민 반발에 무산
배당금 우선시하는 市 부도덕함 지적

인천종합에너지의 송도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위한 2차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 인천종합에너지 본사 관리동에서 열린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신청 2차 주민설명회’는 송도 주민들의 ‘파켓시위’ 등 거센 반발로 인해 인천종합에너지 측은 입을 떼 보지도 못한 채 설명회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설명회 시작 전부터 LNG 열병합 결사반대 현수막을 비롯해 ‘발전소 아아웃’, ‘LNG 아아웃’ 등의 구호가 적힌 파켓을 들고 열병합 발전소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한 주민은 “GS건설이 오션뷰라고 강조하고 분양한 아파트 코앞에 GS에너지 굴뚝 발전소를 짓는다는게 말이 되나”며 “자기분양이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하면, 김소희 자이더스타(발전소 인근 아파트) 입예협 회장은 “LNG 발전소는 친환경시설이 아니고, 20여가지 이상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다”며 “어린이 인구가 22.1%를 차지하고 있는 송도에 유해시설 건설은 인천종합에너지 지



지난 24일 인천종합에너지 본사에서 열린 송도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위한 2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파켓시위 등 반발하고 있다.

울랫송도 제공

분 30%를 보유한 인천시가 주민들 안위나 건강보다는 배당금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사례다”는 말로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배미에 송도시민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송도는 인천의 위함·기피시설 저장소가 아니다”며 “현 사태에 대해 많은 송도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더 이상 송도에 발전소 추진을 하지 말라 달라”고 성토했다.

이강구(연수5) 인천시의원은 “인천시와 종합에너지는 발전소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사업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발전소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LNG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뒹이 된다. 지역 주민 건강권, 환경권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말로 발전소 증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김성훈 울랫송도 대표가 참석자 전원에게 10분간 일문일답식 찬반 질문 결과에서도 208명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5~6만명이 입장 보류 의사를 전했다.

김종우 인천종합에너지 신규열원추진단장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어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결국 설명회 무산을 선언했다.

이연수 기자

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총력’ 100만 명당 100명↓ 목표 설정

인천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올해 식중독 의심 환자는 75명 발생했다. 전국 의심 환자 수 4950명 중 1.5%에 불과하다.

인천지역 식중독 환자는 2020년 128명, 2021년 99명, 2022년 210명, 2023년 180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 수준의 식중독 환자 관리 목표를 유지 중이다.

최근 5년간 인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환자수는 203명으로, 이 가운데 41%인 84명이 여름철(6~8월)에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다.

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배달전문점 및 무인식품판매점 ▲도시락 등 대량 운반 식품취급업소 ▲식중독 다빈도 식품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식재료 관리 등을 점검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

김민지 기자

운업도, 친환경 문화예술의 섬으로 ‘재탄생’

에코비우스 개발, 산통부 심의 통과
환경영향 평가 등 거쳐 2026년 착공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작은 섬 운업도가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제14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에코비우스(ecobius)’ 개발계획이 원안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에코비우스(ecobius)’ 개발계획은 중산동 산345-1번지 일원 운업도의 약 16만㎡ 부지를 친환경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내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영상, 시나리오, 사진, 미술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예술인들을 유치하고 그들이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개발 컨셉을 수립했다.

친환경적 개발 역시 사업의 주요 콘셉트 중 하나로, 기존의 자연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개발면적은 대상지의 30% 이내로 조정했다.

구역별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A구역 생

태문화지구에는 야외미술전시장, 포스트스트레이, 갯벌생명미술관 ▲B구역 미디어콘텐츠지구에는 미디어스튜디오, 아틀리에 월, 독립영화 상영관 ▲C-1구역 한류체험지구에는 한국식 정원, 한류레지던스, 한류체험시설 ▲C-2구역 힐링숙박지구에는 부티크호텔과 스파시설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에코비우스 개발사업은 앞으로 실시계획절차에 돌입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운업도 에코비우스 사업이 완성되면 영종국제도시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갖게 돼 관광객들이 새로운 기쁨을 맞게 된다.

인근에 조성 중인 동북아 최대 해양레저 복합관광단지인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도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을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인천의 다양한 K-콘텐츠 산업의 연계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시민 정책으로 당당하게 시정부 탈환”

고남석 민주 시당위원장 기자간담회
정기당원대회 51.98% 득표로 당선
2026년 지방선거 승리 다짐 밝혀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25일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인천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까지 그동안 이 정도로 인천이 국회의 본진인 경우는 없었다”며 “여세를 몰아 시민들 가슴에 와닿는 정책으로 당당하게 시정부를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인물 승부론’을 꺼내기도 했다. 각계각층의 유능한 일꾼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능한 일꾼들은 정치권에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당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당 프로그램에 이런 교육 과정을 넣어 유능한 일꾼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시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기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1.89%를 얻으며 당선됐다. 이는 현역인 맹성규 의원을 3.78%p 차이로 이긴 것이다.

박지현 기자

이로써 시당위원장 임기와 맞물린 ‘2026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이끌게 됐다.

그는 당선 이유를 민주당의 선거 구조 개편과 당원들의 힘으로 돌리며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고 시당위원장은 “이번에 80%의 권리당이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첫 실험대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이 당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은) 국회의 당직과 시의 당직이 분화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다”며 “앞으로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찾아가 얘기 듣는 열려있는 인천시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미래교육 선도 ‘ESG 경영추진단’ 발족

하반기 ESG 경영 보고서 발간 목표
도성훈 “학생 꿈 펼칠 수있도록 노력”

인천시교육청은 24일 ESG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협의체 ‘인천시교육청 ESG 경영추진단’을 발족했다.

시교육청은 2025년 하반기 ESG 경영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올해 자체 지표 개발을 완료하고 ESG 수준 진단 및 평가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1월 신년 인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도 교육감은 위촉식에서 “인천의 많은 학생이 이미 ESG와 관련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와 진로에 깊이 관심 갖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시교육청의 ESG 경영추진단은 곧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ESG 경영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추진단에 당부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읽길쓰기 출판전 사회’에서 사용한 종이 책장을 재활용하고, 이번 ESG 추진단 위촉장도 ‘모바일 위촉장’으로 전달하는 등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4일 ‘ESG 경영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미추홀구, 민선 8기 공약 ‘72.8% 추진율’ 달성

상황 점검·향후 계획 논의 보고회 개최
5대 분야 114개 과제 중 83개 이행 완료

인천 미추홀구는 2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미추홀구 공약 추진 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년 차를 맞이한 민선 8기 주요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78개 공약, 114개의 세부 과제(중복 6개 포함)로 구성돼 있다.

▲미추홀구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선택제 안전 귀갓길 사업 ▲송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등 83개의 사업이 이행 완료돼 72.8% 추진율을 달성했다.

이영훈 구정장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맞이



25일 열린 민선 8기 미추홀구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 모습.

미추홀구 제공

하는 시점으로 앞으로 남은 2년도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윤용해 기자